

서 울 대 사 람 들



S N U
M A G A Z I N E
V O L . 6 1



〈세계의 끝에 닿다〉, 2019, 수묵 채색, 강혜인(서울대학교 동양화과 학사 졸업)

빛나는 지성의 힘

자기가 맍은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 묵묵한 신념을 따라
항상 더 나은 길로 전진하는 사람,
스스로 선택한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집중하여 탁월함을 보여주는 사람.
‘서울대’라는 말이 갖는 무게가 있습니다.
후회 없이 공부했고, 한 사람 한 사람

출중한 능력을 갖췄습니다.
빛나는 지성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저마다의 길을 걷고 있는
서울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04 -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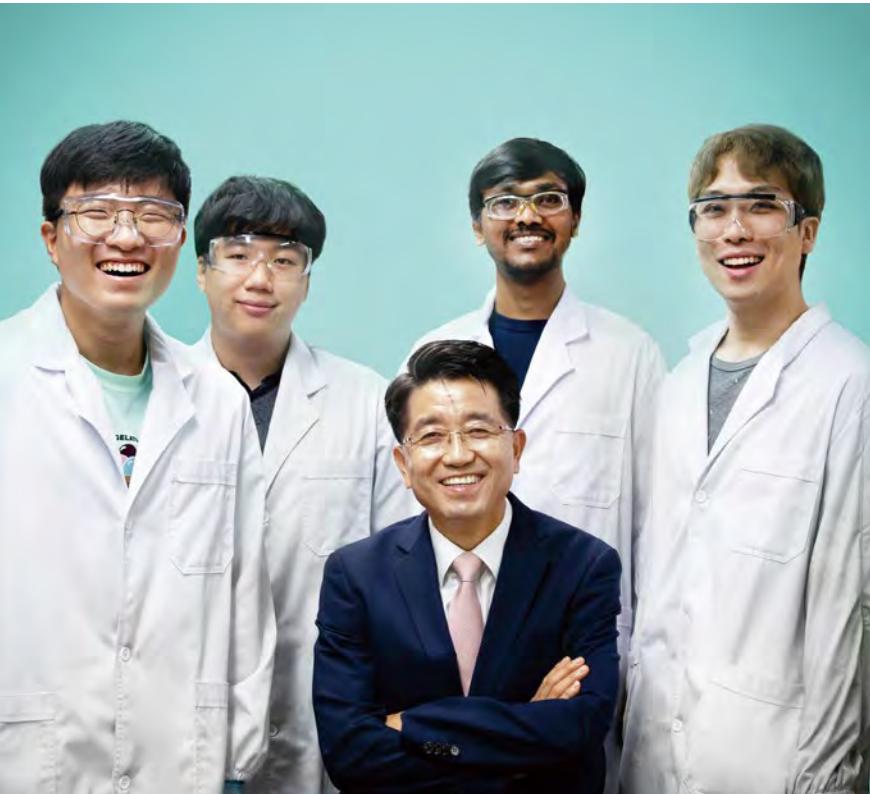
08 - 19

20 - 27

28 -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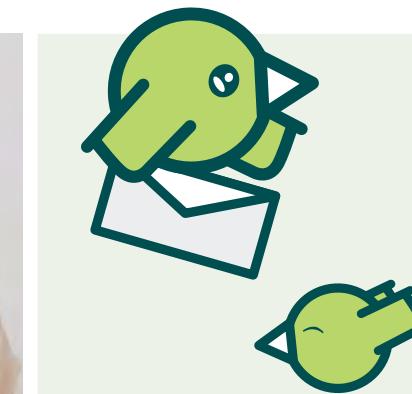
커버스토리

오롯이 연구에
몰입한 삶



서울대 구성원의 이야기

샤샤 트리페 물리천문학부 교수
이동진 영화평론가 동문
경영대학 동아리 티움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 단행본자료실



학교의 이야기

스누새편지
캠퍸스 소식
연구 노트
SNU 단신



21세기에는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가 협력할 때
세계 최고의 연구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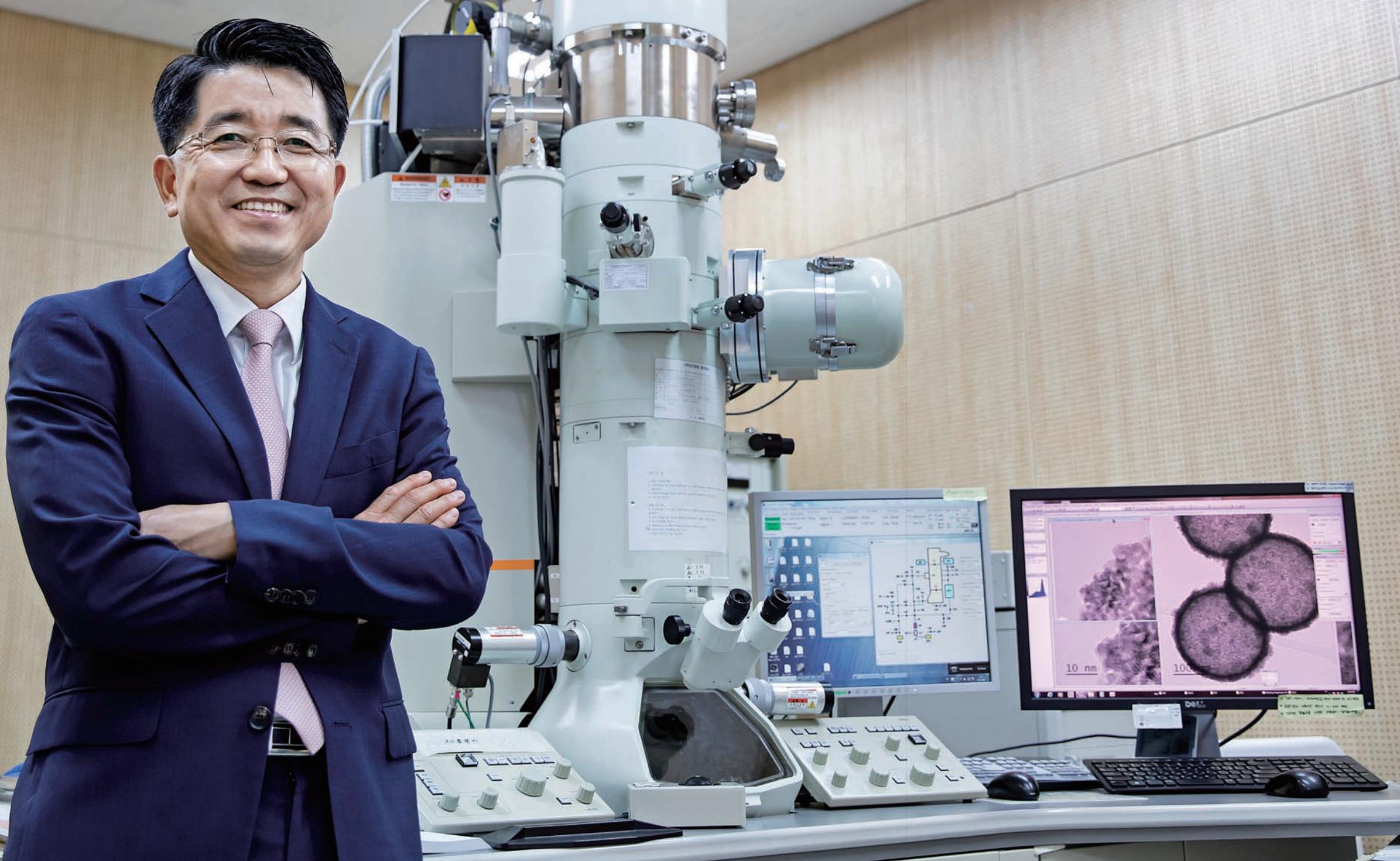
삶에서 잊고 싶지 않은 세 가지는
유머와 품위 그리고 호기심입니다.

기분 좋은 아침의 시작, 스누새편지
스누새는 오늘도 답장을 기다립니다.

항상 도전하는 정신으로
새로운 학문을 개척해야 합니다.

오롯이
연구에
몰입한
삶

현택환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1997년 처음 서울대학교에 부임했을 때만해도 미지의 영역이었던 나노 소재 분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과학자를 정의한 현택환 석좌교수는 ‘균일한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승온법 (heat-up process)’ 연구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2016)을 수상하고 향후 노벨상 화학 부문 수상자에도 가까이 다가간 세계적 과학자로 평가 받는다. 그에게 오롯이 연구에 몰입한 삶의 비결을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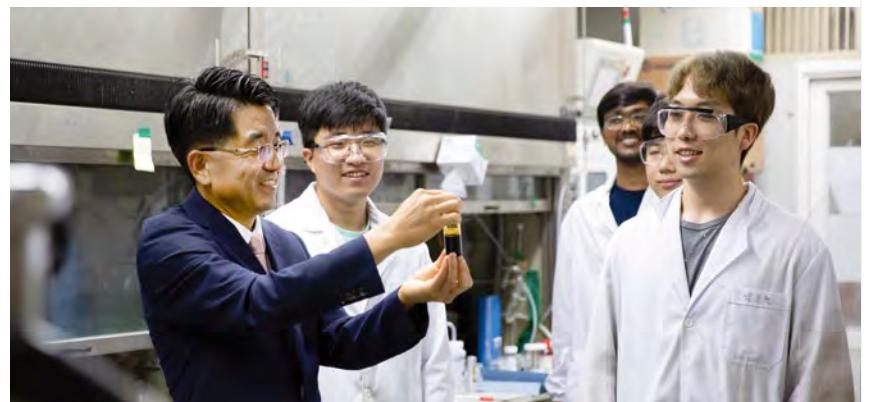
과 학 자 로 서

기 적 의 해 를 맞 이 하 다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모든 과학자의 꿈이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혼택환 교수는 <네이처(Nature)>, <네이처 머터리얼스(Nature Materials)>,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 <사이언스(Science)> 학술지 각각에 총 4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나노 입자를 주제로 기초 화학 연구부터 의료와 에너지 분야 응용연구까지 각기 다른 분야에서 그가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각각의 연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나노입자를 통해 소재의 결합 구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발표한 네이처 표지논문은 연구만 7년 이상이 걸렸다. 물과 산소만으로 과산화수소수를 만드는 연구, 뇌전증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서 개발 연구, 공동 연구로 참여한 나노 입자의 정확한 결정 구조를 액체 상태에서 밝히는 기초연구까지 그는 학생 및 연구원들과 오랫동안 수행한 연구가 좋은 논문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고 했다. “올해 제가 발표 한 3편의 네이처 논문과 1편의 사이언스 논문은 전부 저자가 10명 이상이에요. 네이처 표지논문에는 서울대 교수 3명을 포함해서 UC버클리와 스텐퍼드까지 교수만 7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예전처럼 한 명의 천재가 혼자서 큰 논문을 발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21세기에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여러 명이 모여야 세계 최고의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도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제가 이룬 성과는 23년간 함께 한 제자들의 열정, 공동 연구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국비 유학으로 지원받았고, 많은 연구비를 받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 과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빛진 마음을 가지고 늘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지 금 의 그 를

있 게 한 승 온 법 논 문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등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부품은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어떤 완제품이 좋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 구성 단위인 ‘소재’의 성질이 우수해야 한다. 바로 이 소재의 성능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것이 나노과학 기술의 핵심이다. 나노미터의 크기를 가진 나노입자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크기의 입자를 균질하게 조절하는 것. 대표적으로 반도체 나노입자 크기를 6.3nm부터 2.5nm로 조절해서 자외선을 쪼이면 크기에 따라 형광의 빛깔이 결정되고, 이것이 디스플레이의 선명도를 조정하는 핵심기술인 것이다.

2001년 미국 화학회지에 발표한 ‘균일한 나노입자를 크기분리 과정 없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승온법(heat-up process)’ 논문. 세계에서 2천 번 정도 인용이 된 이 논문과 3년 후에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대량 생산의 길을 연 2004년 네이처 머터리얼스 발표 논문은 4천 번 가량 인용된 그의 대표 논문이다. “제 연구 전에 MIT와 UC버클리에서 좋은 논문을 발표했어요.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혼합되어 있는 입자에서 같은 크기의 입자를 일일이 골라내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대량 생산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는데 저희의 논문은 획기적으로 합성법을 개선해서 훨씬 싸고, 쉽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균일한 나노입자를 1000배 정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기 초 화 학 연 구 에 서

나 노 기 술 강 국 이 되 기 까 지

혼택환 교수가 처음 서울대학교에 부임했을 때, 사람들은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화학과 출신의 자연과학자가 공대에 부임했기 때문이다. 그는 기초 화학을 넓고, 깊게 공부한 이후 공학으로 연결지었다. 다른 과학자들이 하지 않는 본인만의 연구 주제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할 당시는 막 나노과학 분야가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이 분야가 상당히 흥미롭게 와 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교수가 되면 꼭 독립된 연구자로서 새로운 연구를 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연구 주제였던 음파화학과 전혀 다른 나노과학 분야의 논문들을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후 본격적으로 나노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학생들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이 나노입자 분야에서 20여 년간 이룩한 발전은 놀라울 정도다. 나노기술 연구자가 전무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서울대 공대 교수 중 거의 30% 이상이 관련 연구를 한다. 이제 한국은 세계 3위권의 나노기술 강국이다.

“교수로 임용되었을 당시 정착금 4천만 원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논문을 부임 후 일찍 발표하여 이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연구비를 받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임용 4년 후인 2002년에 창의연구단에 선정되었고, 2012년에 IBS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IBS 나노입자 연구단은 장비 및 연구 환경, 참여교수/연구원/대학원생 등 의 인적 구성 등 관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나노 다결정 소재를 관찰한 혼택환 교수의 연구 결과가 표지 논문으로 수록된 <네이처> 2020년 1월호

그가 연구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

- 1 박사 전까지 세계 탑 저널에 논문 2편을 발표하며 독립된 연구자로서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
- 2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부대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 3 항상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겸손해야 한다.

단 순 하 고

집 중 하 는

삶 을 살 며

나노기술 분야 최고 권위자의 삶은 단순하다. 매일 평균 10시간, 하루 대부분의 활동은 오로지 연구에만 초점을 맞춰서 있다. 11년째 맡고 있는 미국화학회지 편집장, IBS 단장으로 하는 일 등 꼭 해야 되는 일들 외에는 연구에 집중한다. “하루 일과 대부분은 논문을 읽거나 논문을 쓰는 것입니다. 최근 탑 저널에 나온 논문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내거나, 우리 연구실에서 한 연구 결과들을 논문으로 정리합니다.”

그는 종종 연구를 물고기 잡는 과정에 비유하곤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지요. 어부로 따지면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최신 소나(sonar)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든 물고기가 어디에서 잡히는지 알아야죠. 그다음 실험 테크닉과 스킬을 잘 배워서 결과를 내고, 자기 언어로 스토리텔링하면 한 편의 논문이 만들어집니다. 이후 편집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문의 질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그것들을 해내야 세계적인 연구자로 설 수 있어요.”

자신이 그랬듯,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항상 ‘독립적 연구자’로서 그들이 성공하길 바라는 혼택환 교수. 앞선 사람이 걷는 바른 걸음이 뒤따르는 사람의 길이 된다는 마음으로, 자신보다 더 나은 제자가 나오길 기대하며 그는 오늘도 묵묵히 연구실로 향한다. “제가 서울대를 떠날 때 제자들이 저를 보면서 혼택환 교수를 닮고 싶다는 말을 한다면, 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국민에게 빛진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주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한 껏풀 더 벗겨졌다. 구글과 페이스북 창업자 등이 후원하는 ‘과학계의 오스카상’ 2020 브레이크스루상 기초물리학 부문에서 수상한 사건지평선망원경(EHT: The Event Horizon Telescope Collaboration) 팀은 2019년 인류 최초로 블랙홀 그림자 이미지를 촬영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치원 때부터 우주가 품고 있는 거대한 비밀에 호기심을 느끼며 천문학자의 꿈을 꾼 샤샤 트리페 교수. 347명이 함께 공동연구를 펼친 EHT 팀의 일원으로 이 상의 의미와 앞으로의 우주에 대한 연구 계획을 들려준다.

블랙홀 관측으로 우주의 비밀에 다가가다

샤
샤
트
리
페

물
리
천
문
학
부
교
수

사건지평선망원경(EHT) 팀이 2020 브레이크스루상 기초 물리학 부문에서 수상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이 상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브레이크스루상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초과학 부문에서 굉장히 큰 상이죠. 제가 알기로 이 상은 원래 노벨상 등 다른 유명한 상들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노벨상의 경우 수상자를 3명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상은 EHT 팀처럼 큰 규모의 팀 단위로도 수상할 수 있어요. 현대 과학 연구가 여러 팀 단위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노력한 수백 명의 과학자가 쏟은 공로를 모두 인정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 역시 오랜 시간 노력해왔는데, 그 노력이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지난해 EHT 팀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블랙홀 그림자 이미지를 촬영하셨는데요. EHT 프로젝트의 블랙홀 관측 연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중력이 강한 천체입니다.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블랙홀과 다른 어떤 것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때 블랙홀의 강한 중력은 블랙홀의 외부 경계면을 지나는 빛을 휘게 만드는데, 이를 관측하여 블랙홀의 윤곽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보면 이 빛들이 블랙홀을 휘감아 하나의 거대한 원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우주에서는 작은 천체지만, 엄청난 질량을 가진 블랙홀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해상도가 필요합니다. 높은 무선주파수를 사용하는 전파망원경을 여러 대 연결하면 천체를 더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8개의 전파망원경을 연결해서 8개의 망원경이 동시에 같은 블랙홀(M87)에서 나오는 전파를 관측하고, 이를 하나의 슈퍼컴퓨터에 모아 분석했습니다. 망원경이 8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는 점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이미지를 확보했죠. 지구 곳곳에 위치한 8개의 안테나가 각각 하나의 픽셀 같은 역할을 하여 전체 블랙홀의 이미지를 구성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EHT 팀에서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EHT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전파천문대(SRAO)도 이용될 수 있을까요?

팀 내에서 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전파천문대(SRAO)가 블랙홀 관측 등에 사용될 수 있게 모델링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SRAO는 현재 블랙홀 관측에 필요한 안테나 등 장비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매끄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므로, 가까운 미래에 블랙홀 관측에 사용되는 전파망원경의 반열에 충분히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벨상급 발견'이라고 평가받는 블랙홀 관측에 대한 과학적 의의와 교수님 개인적으로 처음 블랙홀 그림자를 포착한 느낌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블랙홀 그림자를 처음으로 포착했을 때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은 안도감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크게 안도했죠.

과학사적 의의에 관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일단 물리학자들의 경우 블랙홀을 직접 관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블랙홀이 정말 실존한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거예요. 저 같은 천문학자는 블랙홀이 실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이들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 블랙홀이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세계 20여 곳의 연구기관, 347명의 과학자들로 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역할을 나누어 연구에 참여하고 있나요?

굉장히 복잡해요.(웃음) 세계 각지에 있는 8개의 전파망원경 시설을 연결하여 관측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했어요. 직접 관측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를 조율하고 연구비도 지원하는 조직도 있고요. 일종의 학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원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행정 조직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전파천문학은 상대적으로 작은 공동체입니다. 전 세계에 몇백 명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연구자들끼리 서로 이미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이 이번처럼 큰 규모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인 과학자의 경우, 10~15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천문연구원에 6~7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전 세계의 연구소에 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9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서울대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또 서울대의 연구 환경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008년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년간 프랑스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한 후, 다른 기회를 알아보던 중 서울대 천문학부 측에서 교수직을 제안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알게 된 지인 중 한국 천문학자들도 몇 명 있었고, 서울대가 좋은 연구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익히 알고 있었기에, 큰 고민 없이 왔습니다.

연구 환경에 관해서는, 서울대는 확실히 좋은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동료들과 학생들 모두 굉장히 훌륭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는 게 매우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울대만이 아니라 한국의 특징일 수 있는데, 연구 지원이 기초 과학보다는 AI와 같은 응용과학 프로젝트에 치중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이미 뛰어난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기초 과학에 대한 지원이 더욱 잘 이루어진다면 연구 역량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 처음 천문학자의 꿈을 세우셨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묵묵하게 연구하시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책을 많이 읽었어요. 우주에 대해 알면 알수록 신기했죠.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때 좋은 수학, 과학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수학과 물리를 통해 우주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천문학자의 꿈을 꾸게 되었죠. 16~17살 즈음에는 이미 천문학자라는 꿈이 확고해진 상태였어요. 제 연구 분야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아직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다 보니 연구하면서 매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직 알아가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 제게 있어 연구의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아가고 발견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평소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교수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학생들이 내용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꽤 어려워요. 학생들이 여러 공식을 외우고 기억하게끔 하는 것은 비교적 쉽죠. 하지만 학생들이 중요하고 근본적인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그저 공식

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런 공식들이 탄생했고, 그 공식들의 근본에 자리하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봄 학기 수업은 어떠셨나요? 힘드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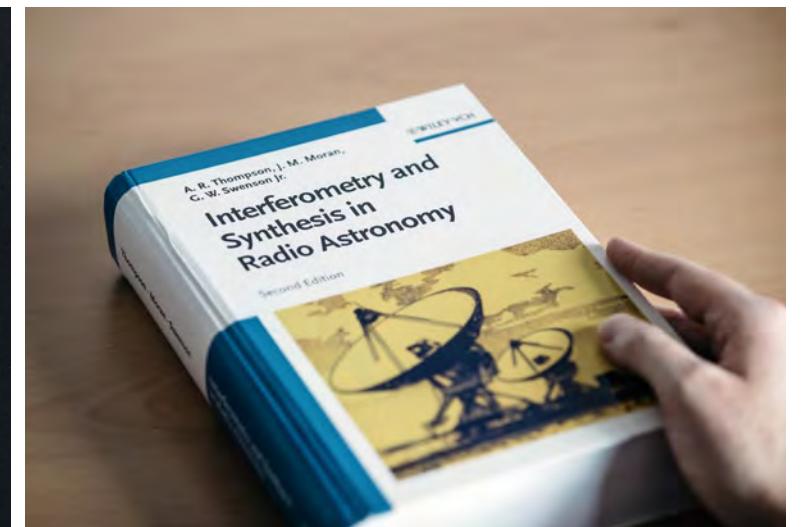
저는 이론 수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운이 조금 좋은 편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Zoom(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업하고, 어쩌다 수업을 놓친 학생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녹화본을 올려 두었어요. 꽤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별로 힘든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학자로서 교수님께서 갖고 계신 연구 계획과 앞으로의 비전을 들려주세요.

현재 저는 학생들과 같이 활동은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활동은하핵이 무엇인지 그리고 블랙홀이 자신이 속해 있는 은하와 상호작용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난해 EHT 팀이 인류 최초로 포착한 블랙홀 그림자의 모습



사샤 트리페 교수가 공저로 참여한 '전파천문학의 종간계측과 종합계측'



이동진

종교학과

87학번

영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익숙한 이름이 있다. 개봉하는 거의 모든 영화에 관해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중립적 언어로 한줄평을 남기고, 다시 책과 기사, 블로그, 라디오, 방송까지 매체를 넘나들며 촘촘한 사유를 전달하는 영화평론가 이동진. 그는 사실 수험생 시절 읽은 한 권의 종교학 책이 이끈 길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계획대로 흐르지 않는 인생에서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대로” 20년째 영화평론가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방대한 독서를 통해 탄탄한 삶의 자세를 구축한 그에게 지성인은 무엇인가 물었다.

영화를 토대로 깊고 넓은 이야기 집을 짓다

이동진

영화평론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8편의 영화 평론을 모은 책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를 지난해 펴내셨죠. 방대한 역사를 집대성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영화평론가로 살아온 지난 20년간을 총 정리해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쓴 영화평들은 제 상황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매체에 실리게 되었는데, 시작은 신문에 게재되는 영화평들이라서 원고 매수가 기껏 해야 200자 원고지로 7~8매 안팎인 짧은 분량이었죠. 그러다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동진닷컴이란 1인 매체를 만들어 영화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점점 길어져 네이버나 다음에 20~30매가량의 평을 실게 되었고,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를 위해 추가한 최근 영화평은 60~80매

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글을 쓸 때 그 글이 실리는 매체의 성격에 맞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런 변화가 세월의 흐름이나 제 활동 무대의 변화에 따라 그대로 담긴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의 특성을 실감하면서 결국 형식이 글의 성격을 좌우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적극적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쓸 수 있으면 글이 좀 더 분석적이고 건조하며 치밀해지죠. 반면 좀 더 다양한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써야 하고 분량에 제한이 많아지면 수사법이 화려해지고 좀 더 감성적인 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포함한 예술이 모두 그렇듯, 글 역시 형식과 내용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긴 글을 읽지 않는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잘 정리된 치밀한 지식에 대한 시대적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책을 쓰며 예상했던 반응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는 지난 20년간 제가 쓴 영화평을 한자리에 모은 책이라 개별 글들 사이에 특성이나 스타일에서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몇몇 평들은 천 페이지 가까운 무지막지한 분량의 책을 읽는 독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표나 일종의 비평적 농담 구성을 하도록 넣은 것까지 있으니까요. 이처럼 어느 정도 불균질하다고 할 수 있는 성격의 책을 냈기에 그다음 책으로 올봄에 출간한 <이동진이 말하는 봉준호의 세계>는 그 반대편에서 분량에 구애받지 않은 채 쓰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쓰면서 균질하고도 통일성이 있는 평문들과 인터뷰로 구성되도록 했어요. 지난 1년 사이에 쓴 이 두 책이 결국 영화평론가로서 저의 현재일 것 같네요.

'영화'라는 하나의 주제로 20여 년간 글을 쓰셨는데요. 처음 어떻게 영화평론가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저는 13년 전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대로”라고 적어놓았습니다. 대학 시절까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스스로를 다그치는 방식으로 삶의 거시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삶에서 태도는 견지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계획은 그나마 짧은 기간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믿게 됐죠. 반면에 인생 전체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여기게 됐어요.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고 대학 시절 비디오잡지에 글을 썼던 상황까지 포함하면 거의 30년간 평을 쓰고 있음에도 그다지 권태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잘 맞기도 하지만, 이런 저도 어떻게 영화평론가가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부족한 능력과 짧은 시야를 지닌 저로서는 그저 하루하루 물밀듯 쏟아지는 일들 속에서 의사하지 않으려고 허덕이며 필사적으로 해엄쳤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현재의 저입니다. 그게 행인지 불행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영화'라는 하나의 주제를 변주해서 기사를 쓰고, 책을 쓰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공연하고, 라디오와 TV 방송까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평론가님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삶에서 잊고 싶지 않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머와 품위 그리고 호기심인데요, 많은 일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또 오래 일을 하려면 특히 호기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도 새로 쓴아지는 책과 영화와 음악이 궁금하고, 세상의 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자주 인용하시는 말이죠. “깊게 파려고 넓게 파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스피노자의 말인데, 저는 넓이와 깊이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편입니다. 땅을 파기 위해서 삽질을 해본다고 가정해보세요. 깊게 파려면 일단 넓게 파야 합니다. 지식으로나 직업으로나 세상살이 모두 넓이와 깊이 중 더 필수적인 것은 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넓게 파지 못할 때 사람들은 편견이나 무지에 갇히기 쉽죠. 그러면서 작은 우물에 땅리를 틀고 들어앉아 동전만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충분히 깊다고 착각을 합니다. 넓이는 교양이면서 윤리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학 전공자'라는 별칭이 있기도 하신데요. 종교학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계기와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그런가요? 수험생 시절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철학 미학 종교학이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종교학과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당시 조교이셨던 분이 그런 제가 기특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신 뒤 책 몇 권을 건네주셨죠. 그 중 정진홍 교수의 '종교학서설'을 읽고 사로잡힌 게 결정적인 진학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부에서 나름 열심히 전공 공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이 영화평을 할 때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학이라는 귀한 학문을 공부하며 배우게 된 어떤 태도 같은 것이 제 삶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학창 시절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름대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보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돈을 번 일들도 포함되는데, 과외를 포함해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학생으로선 꽤 많이 벌었기에, 고생하시던 부모님께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전공과 무관하더라도 관심이 생기는 분야가 있으면 학교에서든 동네에서든 군대에서든 일종의 독서 동아리들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책을 읽고 토론을 했던 것도 잘한 일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으신가요?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지요.

악기를 배우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저는 모든 예술이 최상의 단계에서 음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면 삶도 그럴지도 모르죠. 음악을 참 좋아하고 또 배울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늘 최우선순위에서 밀려 번번이 포기했던 게 후회가 됩니다. 배우고 싶은 악기가 한둘이 아닌데, 특히 피아노가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도해볼 수도 있을 텐데 바쁘다는 핑계로 여전히 미루고 있네요. 이러다 노인이 되어서 또 후회할 것 같은데.

'지성인'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회의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지성인 아닐까요. 자신이 믿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고 전제하는 태도, 자신이 믿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과 충돌하는 뭔가를 목도했을 때 그에 따라 스스로를 수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지성인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평론가님이 갖고 계신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세워봤자 다 굿나더라고요. 제 계획은 그냥 하루 단위, 끽해야 한 주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저는 판교에서 강의를 하나 해야 하고, 개봉을 한 달 앞둔 영화 한 편을 보아야 하며, 곧 출간될 제 책의 최종 교정본을 마무리해 넘겨야 하고, 시간이 허락하면 블로그에 글 하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일들을 24시간 안에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해낼 수 있도록 제 나름의 방식으로 시간 운용 계획을 짍니다. 솔직히 다음 주에 할 일들은 어떤 게 있는지 대부분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지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영화를 보고, 책을 읽어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영화나 책은 낙치는 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YES24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잠시 찾아보니, 10위 안에 들어 있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 돈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이른바 자기계발에 관한 것들이네요. 물론 좋은 책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책들을 읽는 사람들 상당수는 독서를 그 자체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즉각적인 수단으로 대한다는 느낌입니다. 막말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인생을 좀 더 품나게 살고 싶어서 책을 읽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특정 영화를 보거나 특정 책을 본다고 해서 그 불안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병원을 찾아가거나 주변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죠. '낙치는 대로'라는 것은 '호기심에 이끌리는 대로'라는 뜻일 겁니다. 뭔가를 위해서 영화나 책을 보면 금세 지칩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보아야면 독서나 영화감상이 지속 가능해집니다. 그저 영화는 영화고 책은 책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호기심을 습관화하면 삶 자체가 좀 더 견딜만하고 좀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가 새롭게 마련한 개인 작업실 파이아키아(Piarchia). 오디세이의 마지막 여행지 이름에 건축과 기록보관실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세상을 바꾸는 인사이트를 트우다

경영대학

실질적인 사회공헌을 경험하다

서울대 경영대학에는 전공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학회, 개개인의 취미나 관심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아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티움은 사회공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론으로 배운 경영학을 직접 현실에 적용하며 사회적 가치까지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동아리다. 티움의 미션은 'Tangible Social Sharing', 실질적인 사회공헌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을 싹틔우겠다는 뜻을 담았다. 티움은 도움을 청할 여력도 없이 하루하루 빠듯한 삶을 살아가는 자영업자를 직접 찾아가 경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업체 선정 시 티움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요소는 '의지'와 '소통'.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제안했을 때 두 가지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상호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이 기억에 남아요. 집밥이라는 컨셉을 잡고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데도,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님이 집밥처럼 느낄 수 있도록 메뉴판을 정비하고, 식당 한편에 집에 있을 법한 상비약을 둔 ‘케어 서비스존’을 만들었어요.” 티움의 컨설팅을 통해 식당의 컨셉이 명확해졌고, 자연히 매출도 올랐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배달 시장이 막 크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가 배달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사장님께서 확고하게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조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소비 습관이 변하니까 방문 매출은 점점 줄었을 거예요. 장기적인 컨설팅도 중요한데 안타깝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다

티움의 컨설팅은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물론 학생의 신분으로 지역 상인들을 설득하기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타협을 선택하기보다는 티움만의 방법을 만들 어낸다. 티움에서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업체와 업무협약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계약서가 무색하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업체도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티움 안에서도 비협조적인 업체에 폐널티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어떤 업체는 저희가 애써서 여러 번 제안해드려도 그때마다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팀 회의가 매번 4시간을 넘겨서 진행됐죠. 학생인 저희를 쉽게 믿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티움이 전문성을 갖췄고 믿음직스럽다는 점을 더 어필하기로 했죠.” 프로젝트 중에 강남으로 가게를 이전하겠다는 업체를 설득하기 위해 코딩까지 배워 배달 앱에서만 볼 수 있던 매출표를 만들어 분석했다. 그 영향으로 업체의 매출과 인지도가 눈에 띠게 향상됐다. 사장님의 가게를 이전할 이유가 더는 없었다. 이 프로젝트는 티움이 말하는 전문성과 신뢰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가 됐다.

티움이 활동하며 얻는 인사이트는 무엇일까. “세상을 바꾸고 싶은 후배에게 티움을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는 졸업, 취업, 승진,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준비만 해요. 티움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준비한 걸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이죠. 자신의 이런 작은 동아리 활동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미칠 수 있는지 절실히 느껴 볼 기회라고 생각해요.”



임가영

미학과

15학번

송슬옹

경제학부

13학번



도서관에서 듣는 어제와 오늘

중
앙
도
서
관

고
문
헌
자
료
실

단
행
본
자
료
실

한국 현대사를 열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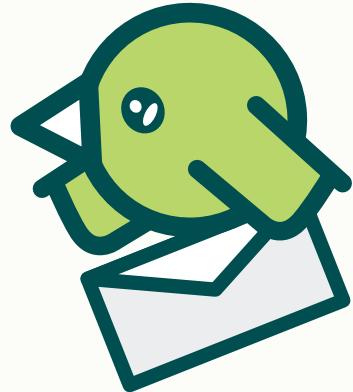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전태일 열사 5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하고 뜻깊은 해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이를 기념해 지난 6월부터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 서울대인과 서울대 도서관의 경험>전을 진행 중이다. 4·19혁명 때 서울대는 학생 6명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슬픔에 빠진 상경대 학생회는 상경대 3학년이었던 안승준을 추모하는 기금을 모아 상경도서관에 '안승준문고'를 설치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진 '안승준문고'를 찾아 전시했다. "도서관 7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70년사」를 송 선생님과 함께 썼어요. 준비하면서 「서울대학교 도서관 50년사」를 읽고 감동했거든요. 한국전쟁 당시 책을 지키기 위한 선배들의 노력을 볼 수 있었어요."(민세영) 전란이 터지고 서울대는 도서관의 귀중본을 옮길 여유가 없었다.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백낙준 박사가 급하게 트럭 8대를 수배해 중앙도서관에 5대, 국립도서관에 3대를 보냈다. 그 노력으로 북한 인민군으로부터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등을 지킬 수 있었다. 지난 4월에는 70년 만에 고서「모든 문자와 언어의 공통 본성론」이 서울대의 품으로 돌아왔다. 한국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영국군 한 명이 서울대 도서관에 피신해 있을 때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려고 챙긴 책이었다. 그 군인이 영국 작가 앨런 가너(Alan Garner)에게 전해준 책을,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앨런 가너가 언어학과 김주원 교수를 통해 서울대에 돌려준 것이다. 책을 반환한 앨런 가너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전쟁 중 서울대 도서관 장서 일부가 불에 타 사라졌음이 확인된다.

2020년 서울대 도서관 풍경

다사다난한 역사를 지난 서울대 도서관의 2020년은 어떤 모습일까. "서울대 학생들은 확실히 한 주제를 깊고 다양하게 공부해요. 무거울 것 같은데, 책을 한 아름 들고 가는 학생들이 많죠."(민세영) 책을 꼼꼼히 보기 때문인지,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은 채 반납되는 책도 허다하다. 따로 날을 잡고 포스트잇만 떼는 작업을 할 정도. "많아지면 고된 업무가 되지만, 무엇보다 포스트잇을 떼다가 책이 찢어지기도 해요. 잘 떼도 남은 접착력에 먼지가 붙기도 하고요. 간지를 끼워서 보면 좋겠어요."(송지형) 서울대 학생은 자료를 찾을 때도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이 찾으려는 의지가 강하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송지형)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무엇보다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줄 때다. "의대 교수님께서 다섯 가지 약제의 발화온도에 대한 연구지원을 요청하셨어요. 서울대에서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도 결과를 찾을 수 없어서 국내 화학 데이터베이스 전문업체에도 문의했지만 허사였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명확한 답을 얻어 전해드렸을 때 교수님께서 기뻐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도 자료를 여러 번 요청하셨지요."(민세영) "연구자에게 필요한 자료 찾기를 돋는데, 실제 결과물로 나오면 정말 보람차요."(송지형) 70년 전에도, 지금도 중앙도서관 사서가 바라보는 서울대 사람들은 한결같다. 책을 잔뜩 펴놓고 밤낮없이 공부하는 사람들. 오늘도 중앙도서관의 일원은 서울대 사람들의 연구 결과가 세상에 나와 빛을 발하길 바라며 묵묵하게 조력한다.

대한민국 땅끝까지 예비 서울대 가족을 찾아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꿈을꾼다. 각자가 이루고 싶은 꿈의 과정에 서울대학교 입학이 있다. 치열한 입시는 꿈을 이루기 위한 관문일 뿐,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대학교가 전라남도 고등학교를 찾아 입시생들을 만났다.



‘사’ 문을 통과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

장마전선이 올라와 구름이 온통 무겁던 7월 어느 날, 스누새가 기차와 버스를 얹어타고 열심히 쫓아간 곳은 땅끝마을과 인접한 전라남도 강진군의 강진고등학교, 그리고 아름다운 남해 바다가 가까이 있는 고흥군 녹동고등학교에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김성규 입학본부장님, 강건욱 부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울에서 온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설명회에 모인 90명의 학생들은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꺼낸 서울대의 입시 비책을 얼른 듣고 싶은 표정들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은 현재 여건에서 어떤 잠재력을 가진 학생인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이 아닌 학업 노력, 의지,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듣기만 해도 좋은 기준들로 평가한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눈앞의 시험 결과가 더 크게 다가오는걸요. 마치 전교 1등 자리에서 미끄러지면 서울대 입학의 꿈도 물거품이 될 것 같아 조금한 마음이 들잖아요. “어떤 과목에서 2등급을 받은 사람과 3등급을 받은 사람 중 누가 더 잘한 걸까요? (학생들은 “당연히 2등급이 더 잘했다”고 대답해요) 그럼 150명 수업에서 2등급을 받는 것과 50명 수업에서 3등급을 받은 것은 누가 더 잘한 걸까요?” 학생들은 앞의 질문과 달리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하네요. 입학사정관 선생님은 숨겨진 조건들이 추가될수록 평가가 달라지는 정량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것, 즉 학교생활 전반에 어떻게 참여하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학생부에 적히는 활동들이 ‘결과’라면 그 ‘과정’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토론통아리를 했다’라는 결과는 그저 소재 일 뿐입니다. 그 소재를 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학교생활 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부딪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한 발짝 더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곳 학생들이라고 도시의 학생들보다 꿈이 작지 않겠지요. 학생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택시를 타고 40분을 달려서 다른 학교 수업을 듣기도 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계공학 쪽 진학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수업이 없어서 근처 해남고에서 ‘공학 일반’, ‘기계 일반’ 수업을 듣고 있어요. 비행체를 만드는 동아리도 하고요.”(정○○ 학생) 다음날 열린 녹동고 설명회에서 학생부를 책임지는 교사 선생님들은 입학본부장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인근 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참석해 질문을 쏟아내는데, 질문들 속에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고픈 마음이 보여요. “시골 학교는 교사도 부족하고 제약이 많아 선택과목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와 수업을 교류하고 온라인 수업도 하지만 이것이 공정하게 평가될지 걱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5월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못 나와 비교과 영역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다른 학교들처럼 올해 비교과 영역 평가를 축소할 계획이 있나요?” “학생부를 볼 때 특히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나요? 호감 가는 단어들이 있으면 3개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학교는 배우는 곳이고,
배움은 목표로 가는 길 중 하나다

1박 2일 동안 왕복 1,000km를 오간 입학본부 선생님들의 노력이 이곳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지균을 쓸지 일반전형을 쓸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반전형으로 마음을 굳히게 됐어요. 공부의 태도와 동기를 확실히 하고 그 과정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진△△ 학생) 스누새는 어쩌면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입학본부장님의 당부가 길잡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모두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한 과정으로 대학 입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학은 그 과정일 뿐, 목표가 되지 않기를 서울대학교는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ㅅㅇㄷ)에서 태어난 스누새입니다. ㅅ모양 부리가 달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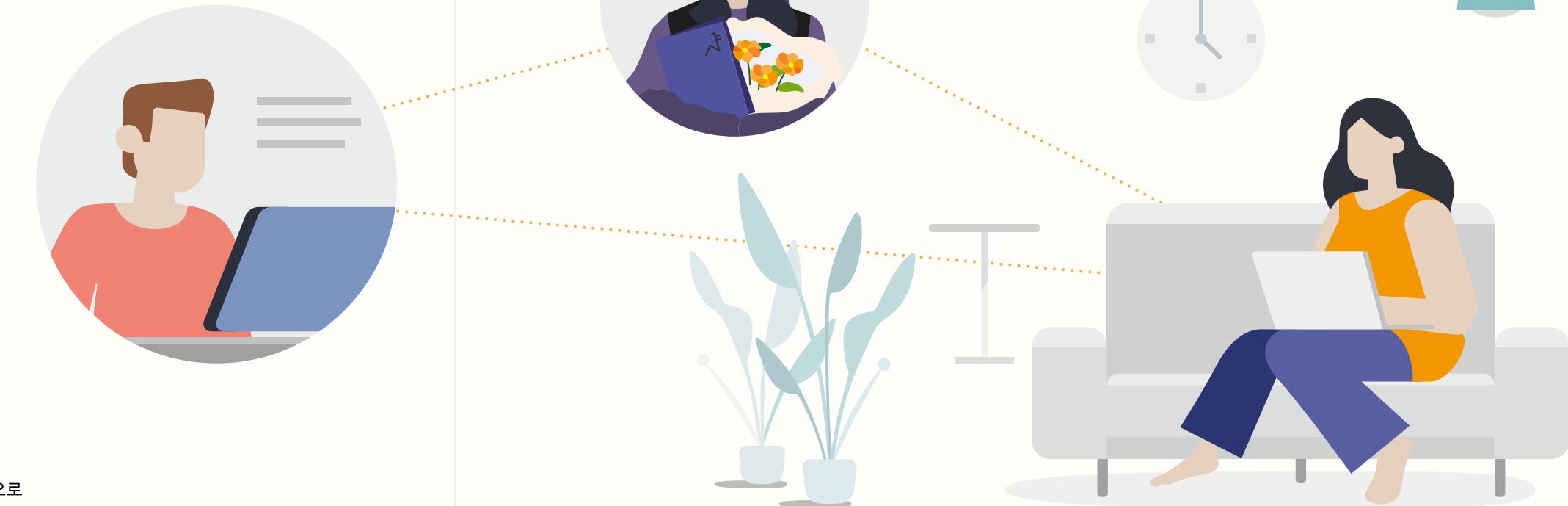
귀여운 ○형 몸매가 매력. ㄷ자 날개로 캠퍼스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서울대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서울대 사람들의 이야기로 사랑받고 있는
스누새편지 모음은 bird.snu.ac.kr에서 볼 수 있다.

언택트와 서울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이 언택트(비대면)로 전환됐다. 졸업식부터 사회공헌, 입학 정보까지 비대면으로도 즐겁고 다양한 학교 이모저모.



서울대 최초의 온라인 졸업식

74회 후기 온라인 학위수여식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워진 지금, 서울대학교는 아쉬운 마음을 담아 대학교에서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74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2020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에 서울대학교 대표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에서 송출된 행사는 사전 카운트다운 영상과 본 졸업식 행사 영상으로 약 40분간 진행됐다. 최초로 진행되는 온라인 졸업식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정문에 포토존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위복을 대여하여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두었다. 그리고 졸업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에서 경험한 최고의 순간’과 ‘영광의 학사모’ 사진을 공모하여 졸업식 영상을 만들었다. 졸업생이 공유한 저마다의 추억이 하나의 영상이 되어 흐르고, 학생 홍보 대사들이 졸업생 선배들에게 전하는 짧은 응원 인사를 통해 졸업을 축하했다. 이어서 총장, 교무처장, 총동창회장 및 졸업생 대표 연설을 통해 행사가 마무리됐다. 졸업생 및 학부모는 박수 대신 채팅을 통해서 뜨거운 격려를 보냈다. 졸업식 영상은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나눔의 열정도 온라인으로

2020 하계 디지털SNU공헌단

글로벌사회공헌단에서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국내외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직접 해외에 파견되거나 지역사회를 방문해서 활동을 펼치는 대면 봉사 대신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모색했다. 이에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모집해 탄생한 ‘디지털 SNU 공헌단’은 영상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캠페인 진행, 장애인 지원과 실시간 나눔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단원 선발부터 사전 교육, 회의, 봉사활동까지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2020 하계 디지털 SNU공헌단’의 미션은 팀별로 다르다. 베트남 대학생들과 함께 8개 언어로 ‘실생활 속 4차 산업혁명’을 영상 콘텐츠로 선보이고 [D-SIGN 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과 함께 건강 정보와 질병 인식 개선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며 [샤우팅], 코로나로 수학여행이 취소된 아이들을 위해 디지털 서울 수학여행 VR 동영상을 만들고 [ON-AIR], 장애인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국내외 장애인 기관에 배포하는 [ABC] 등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지만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사회공헌이 만들어낼 따뜻한 파장을 기대해본다.

입학 정보도 더욱 알차게

입학 웹진 <아로리> 8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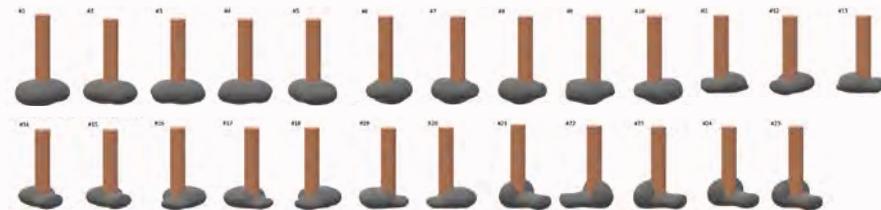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곳.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학전형 설명회가 축소되어 정보 획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해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울대학교 입학 정보 웹진 <아로리> 8호를 제작했다.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설명회 동영상’, ‘2021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책자’ 및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동영상’을 탑재하여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웹진 <아로리>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서류평가 시뮬레이션 코너 ‘나도 입학사정관’이 마련되어 있다.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아동가족학전공 각 3명씩 총 9명의 2020학년도 학생들은 서류를 공개하여 이용자가 직접 학생들을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평가 결과와 다른 이용자들이 평가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2020학년

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기출 제시문과 출제 근거를 ‘자료참고’에 탑재하였으며 ‘신입생이 들려주는 면접 이야기’를 통해 면접 준비과정, 면접실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추억의 서울대’ ‘전공 돌보기’, ‘파릇파릇 서울대’ 코너를 통해 서울대학교 졸업생, 학과 교수님, 신입생 등 다양한 서울대 구성원의 인터뷰 내용을 담아 학생들에게 진로와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웹진은 snuarori.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덤벙주초 착시와 인공시각

심리학과 오성주 교수는 덤홡주초와 관련된 흥미로운 착시를 발견했다. 우리나라 사찰이나 한옥에서 볼 수 있는 덤홡주초는 자연에 놓인 돌멩이에 나무기둥을 받치는 주초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돌멩이 주초 속에 나무기둥이 박혀있는 것으로 지각했지만, 이는 착시였음이 밝혀졌다.



Vision Research 저널에 실린 주춧돌 착시 실험에 쓰인 기둥모형



전통 한옥에서 정평주초는 네모나 둥그런 모양으로 다듬어진 주춧돌이고, 덤홡주초는 자연 그대로의 모양을 가진 주춧돌이다. 정평주초는 궁궐의 건물이나 사찰의 대웅전처럼 주요 건물에서 주로 볼 수 있고 덤홡주초는 민가나 사찰의 부속 건물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아마도 옛날에는 대칭적인 대상을 더 아름답다고 보는 경향과 돌멩이보다 나무기둥을 깎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일 것이다. 5년 전쯤 신문에서 그랬이라는 도구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목수는 덤홡주초의 윗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나무기둥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 덤홡주초 윗면의 윤곽은 부드럽기 때문에 주춧돌과 맞닿은 부분이 울퉁불퉁하면 나무의 일부분이 아닌 주춧돌의 일부분으로 집단화하여 보게 되는 것이다.

한쪽 끝을 덤홡주초 위에 놓고 다른 쪽 끝은 먹물을 묻혀 기둥 옆면을 따라 한 바퀴 돌리면 주초의 유퀄이 기둥에 복사된다. 목수는 이 선을 따라 나무기둥을 깎아 주초 위에 세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고 있었다. 바로 나무기둥이 돌 주초 위에 그냥 서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동안 나무기둥이 돌멩이 속에 박혀 있는 착시를 보지 않았던가! 이 착시는 그동안 알려진 적이 없었다. 의식되지 않으면 존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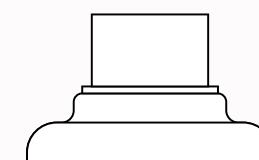
지 않는 법이다. 나는 이 주관적 경험을 객관화하기 위해 연구에 돌입하였고, 2년 동안 사찰, 민가, 민속촌, 궁궐 등 덤홡주초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카메라를 들이대었다. 모아온 사진들을 참여자들에게 보여주자 대부분 기둥이 주춧돌에 박혀있다는 착시를 경험하였고, 착시 크기는 주춧돌의 윗면이 울퉁불퉁할수록 더 박혀있다고 보고하였다. 주춧돌 윗면이 불규칙할수록 나무기둥이 접한 부분을 나무기둥의 소유가 아닌 주춧돌 소유로 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추정된다. 즉, 나무기둥의 측면의 윤곽은 부드럽기 때문에 주춧돌과 맞닿은 부분이 울퉁불퉁하다. 착시는 특정 요인의 숨겨진 역할을 드러내곤 하는데, 본 주춧돌 착시는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윤곽의 규칙성을 드러낸다.

주춧돌 속에 나무기둥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심리학에서 시각적 완성이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물체들은 일부 분이 다른 물체에 가려 우리 눈에 맺히곤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분만 보고서도 안 보이는 부분을 자동으로 복원하여 경험한다.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인공시각 연구자들에게도 시각적 완성은 반드시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물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물체와 물체의 경계를 분절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절된

대상으로 가려진 부분을 복원하여야 한다. 현재 연구자들은 머신러닝 기법에 집중하고 있다. 아주 다양한 이미지들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력된 이미지의 3차원 형태를 추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최신의 기술도 사람의 경험만큼 빠르고 정확하지는 못하다. 덤홡주초 착시는 학습에 의존하지 않고 단순히 물체 윤곽의 통계적 규칙성만을 보고서도 물체를 분절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매우 쉽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각처리는 사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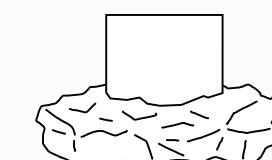
덤벙주초 구조에서 나무기둥 밑은 바람, 빗물, 벌레 등에 침식이 쉽게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기계로 돌멩이를 깎는 일은 나무기둥을 깎는 일보다 더 쉽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사찰에서 보수되거나 새로 건축되는 기둥에서 덤홡주초가 아닌 정평주초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덤홡주초는 자연스러운 선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건축 특징에 부합하도록 잘 간직되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우리만의 연구 스타일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오성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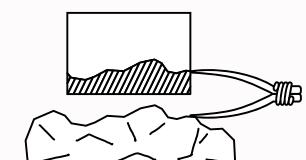
정평주초

초석을 평평하게 다듬은 위에 직선으로 다른 기둥을 옮겨놓는 건축공법



덤벙주초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을 주춧돌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건축공법



그랭이

자연석의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모양을 그대로 다른 부재에 옮겨 그리는 도구

미래 대학교육의 이정표를 세우다



서울대 교육위원회(공동위원장 홍기현 교육부총장, 공대 기계공학부 이건우 교수)는 대학교육의 장기 발전과 새로운 교육정책 및 교육방향 등, 교육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3개 분과위원회에서 서울대가 주목하고 있는 중점 교육과제인 인재상 및 입시제도,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학사·대학원제도 개선 3개 과제를 선정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6개월간 활발한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위원회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지난 6월 19일(금)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320호에서 '서울대 교육, 10가지를 바꾸자'라는 주제의 교육정책 연구 발표회를 공동 개최

했다. 발표회는 '교육목표와 인재상(발표자: 행정대학원 구민교 교수)', '교육제도혁신(사범대 신정철 교수)', '교육방식개선(기초 교육원 유재준 원장)' 3가지 세부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발표회에 이어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 공유와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발표회는 그동안 서울대학교가 추진해 온 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성과를 학내 구성원과 공유·확산하고, 대학교육의 미래와 장기적인 교육정책의 향방을 헤아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다.

더욱 풍성해져서 돌아온 '더 비기닝 시즌 3'



서울대는 기술 기반 우수 (예비)창업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창업경진대회 '더 비기닝'을 진행해왔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더 비기닝 시즌 3'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서울대학교와 서울시, 관악구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조성사업단,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 SNU공학컨설팅센터, 벤처경영기업가센터, 미술디자인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서울대는 서류 및 발표 심사로 선발된 본선 진출 7팀에 고도화된

사업계획서를 위한 특강과 희망자에 한해 팀 리쿠르팅(인재매칭) 기회를 제공한다. 또, 본선 진출 7팀의 엑셀러레이팅 과정은 학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술컨설팅, BM설계 및 마케팅, 제품 및 기업로고 디자인 등 분야별 다양한 멘토링으로 채워진다. '더 비기닝 시즌 3' 참여만으로도 창업팀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준다는 계획이다. 10월 29일(목) 서울대에서 치뤄지는 '더 비기닝 시즌 3' 본선의 총 상금은 1400만 원이다. 게다가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가 본선 진출 7팀 중 1팀 이상에게 총 2억 원 이상의 투자를 확약했다. '더 비기닝 시즌 3'가 시즌 2때보다 더 치열하고 풍성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제10회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

— 의과대학 이진학 명예교수 수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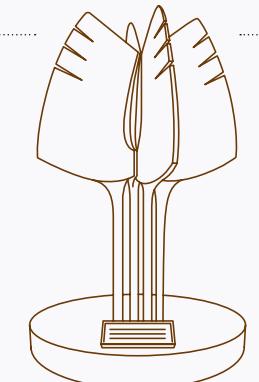
두 지원하기도 했다.

저개발국을 향한 이 교수의 애정은 남달랐다. 2002년 파키스탄의 카라치 수술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감비아 브리카마 개인수술 캠프까지, 18년간 323차의 안과진료 및 수술봉사로 176,139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총 26,577건의 수술을 진행했다.

그는 현지 안과의 양성에도 힘쓰며 2003년부터 5년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케냐의 안과의를 한국으로 초청해 백내장 수술과 최신 지견을 전수해주기도 했다. 연수를 마친 의사들은 현지 안과 진료와 수술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첫 연수였던 몽골 바치멕 의사은 울란바타르에 있는 자신의 병원 이름을 '서울 안과병원(Seoul Eye Center)'으로 명명하며 이 교수 연수를 기념하고, 정기적인 무료 개인수술로 이 교수의 봉사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제13회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

— 가정혜 기부자 외 5명 —



을대인의 면모를 가감 없이 보여줬다.

박희재 기계공학부 교수는 공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대학 실험실 창업, 장학금 기부를 통해 공학기술자로의 소임을 다해왔다.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은 2006년부터 발전기금 출연을 지속하며 약 45억 원(4월 기준)을 서울대에 기부했고, '윤민창의투자재단'을 설립해 미래 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주중광 교수는 항암, 항바이러스 약물을 개발해 서울대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 '주중광·허지영 장학기금'을 통해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며 약학대학 재건축 기부 등 후진들의 연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기에 이번 발전공로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기부는 역사다

발전기금 30주년 특집 1

서울대학교의 공식모금기관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써온 서울대학교발전기금, 30년 역사의 궤적을 천천히 따라가 본다.



연혁으로 살펴보는 서울대학교발전기금

1990년, 서울대학교학술연구재단과 서울대학교 장학회가 통합돼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 설립되었다. 초대 이사장인 조완규(제18대 총장) 이사장은 “서울대는 국가에 큰 지원을 받으나 그래도 기금이 부족해 지난 89년부터 발전기금 모금캠페인을 벌이는 등 독자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경제』, 1991.8.9)라고 언론을 통해 발전기금 설립의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2006년에 그가 받은 인촌상 수상금 전액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두 번째로 취임한 김종운 이사장(제19대 총장)은 조완규 이사장이 마련해 놓은 기금의 발판을 가지고 발전기금조성위원회 및 발전기금조성추진위원회 신설에 앞장섰다. 4대 선우중호 이사장(제21대 총장)은 모금된 기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산운용 자문위원회를 두어 자산운용 점검에 주력했다.

7대 이장무 이사장(제24대 총장)의 취임 이후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운영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4팀 체제로 조직이 정비되고, SNU 발전위원회를 창립했으며 상근직원 정수가 32명으로 증원되었다. 특히, 첫 모금캠페인인 <VISION 2025>를 시행해 본격적인 기부금 모금을 위한 체계적인 모금캠페인 활성화의 서막을 열었다. 8대 오연천 이사장(제25대 총장)은 대학의 미래, 희망, 변화에 가치로 둔 모금캠페인 <SNU CHALLENGE>를 시행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생활비 장학금 제도를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9대 성낙인 이사장(제26대 총장)은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서울대인을 위한 <CREATIVE SNU 人> 모금캠페인을 진행했다. 2019년 취임한 10대 오세정 이사장(제27대 총장)은 국내대학 최초로 기금운용제도 중 하나인 외부위탁관리(OCIO)를 도입해 기금의 수익성 제고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또, 서울대가 가진 비전을 학내 구성원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자 모금캠페인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를 시행했다.

서울대의 새로운 도약, 발전기금과 함께

발전기금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모금사업을 기획하고 홍보하며 모금캠페인의 기획과 시행, 관리를 도맡는다. 조성 기금은 별도로 구성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장학지원, 교육지원,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과 캠퍼스 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사용된다. 연구자를 지원하는 ‘든든한 기부’와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만만한 기부’ 프로그램 등, 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발전기금은 단순한 모금 이외에도 TEPS사업본부를 두고 대학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수의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한다. 또, 각기 마련된 출연팀과 예우팀으로 기부금 출연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고, 다양한 예우프로그램을 기획한다. 기부자를 위한 예우프로그램으로는 기부 금액별로 캠퍼스 투어와 서울대학교 병원 편의서비스, 기부자 초청 음악대학 공연 등이 마련되어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발전기금의 모금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편으로 받았던 자필 신청서와 기부금을 발전기금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약정으로 모금하고, 모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다양한 모금 프로그램으로 기부용도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부자를 위해 ‘나에게 맞는 기부금 찾기’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몇 번의 응답을 거치면 기부 성향에 맞는 모금 프로그램을 추천해준다. 기부하면 연상됐던 기관 중심의 대규모 기부뿐 아니라 기부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매월 만원을 모아 기부하는 ‘만만한 기부’와 같은 소액 기부 프로그램을 확충해 모금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또, 단과대학(원) 및 기관 모금사업은 모금 목표액과 현황이 한눈에 보이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형태로 만들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은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국내 대학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금 모금 및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0’이라는 숫자 앞에 다시 떠올리는 나의 꿈

김영수 명예교수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 57입)

국내 임플란트 권위자의 반열에 오르다

김영수 명예교수는 서울대 치의학과 입학해 치과보철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쳤다. 치과보철학은 파손되거나 상실된 치아를 지닌 환자에게 생체 친화적인 인공물을 이용해 손상된 형태와 기능 회복을 돋는 학문으로, 쉽게 말하면 주로 틀니를 연구하고 만드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도 틀니는 이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만, 음식을 먹다가도 자주 떨어지는 등 아쉬움이 많았다. “진료하다가 환자에게 틀니에 못을 박아서 불박이장처럼 붙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플란트라는 큰 힌트를 얻은 셈이지요.” 당시 그는 틀니보다도 의료진으로서 특수한 의료 시술을 개발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그 길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힌트의 답을 찾기 시작했다.

1973년, 미국에서 오하이오주립대 의사들이 시도한 임플란트 시술을 봤지만 예후가 좋지 않았다. 실망스러울 무렵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스웨덴 외과 의사 브레네막이 뼈 수술을 하다 티타늄이 뼈세포에 달라붙는 성질을 발견한 것. “이때 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활용한 금속으로 이가 상하거나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임플란트에 적합한 티타늄 소재를 발견한 것이지요. 이후로는 안정적인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김 교수는 1985년 스웨덴에 직접 찾아가서 스웨덴의 임플란트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입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오하이오주립대와 하버드대에서 꾸준히 임플란트를 연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설득해 1985년, 드디어 한국에 임플란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다.

꿈을 실현해준 서울대에 보답하다

김 교수는 임플란트 기술 도입 이후에 치의학계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의 전공인 보철학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보철학을 전공해놓고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고 많이 야단맞았습니다. 한국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의사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단 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요. 새로운 의료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꿈을 이렇게 도와준 서울대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 분야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그가 몸담았던 치의학대학이 100주년을 맞았다. 그는 지금까지 서울대에서 받았던 많은 혜택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치의학대학 100주년 기념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많은 사회적 명예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대학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 기회로 작게나마 기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랜 시간 서울대에 재직한 교수인 만큼, 치의학계 후학 양성에 있어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궁금했다. “대학에 있으면서는 후학은 개업하는 치과의사들과는 다른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도전하고 개척하는 정신을 가진 후학을 양성해야지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시기에 ‘임플란트’라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도입하며 그 시장을 개척한 김영수 명예교수. 지금까지 임플란트 수술 6,000회를 돌파한 범접하기 어려운 치의학계의 큰 스승이지만, 그는 여전히 현역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려는 열정 가득한 청년 의사를 꿈꾼다.



희망, 위로, 온기가 머무른 자리에는

아플 때는 증상에 맞게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럼 삶이 고단할 때는 어떤 약을 처방받아야 할까요? 장학금은 지친 삶에 희망, 위로, 온기의 효능을 지닌 알약이 됩니다. 서서히 녹아 따듯함이 자리한 세 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희망
처방전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을 회상해보면, 저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지친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바라던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당면한 어려움을 제 노력으로 극복한 경험은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학교에 입학하고 자취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과외와 학업을 병행하는 건 어려웠고, 공부하면서 많은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우연히 선한인재장학금을 접하게 되었고, 절실한 마음으로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장학금은 또 다른 희망이 되어, 오로지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지?’가 아닌 ‘어떤 사람이 되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진학하고 싶은 실험실에서 인턴을 하고, 고등학생이 꿈을 찾도록 돋는 봉사동아리 드림컨설턴트의 드림캠프에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며 한 공부는 즐거웠고, 성적도 크게 올랐습니다. 학부를 졸업하면 앞으로 약제학대학원에 진학해 약물동태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기존 약물의 부작용, 반감기를 효과적으로 개선한 항암제를 개발하겠다는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뛰어난 인재로 성장해 모교와 국가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글. 이승홍 제약학과



따듯함은
부메랑이 되어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를 지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풍요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함이라고 하지요.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세상은 많이 각박해졌지만, 저는 일하면서 아직도 세상이 따듯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일하며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학생에게 기부해주시는 기부자를 자주 만납니다. 기부금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닿아, 그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첫발을 끼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어줍니다. 특히,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사회초년생이 되어 다시 따스한 손길을 내미는 것을 보았을 때 그 감동은 배가됩니다.

어려운 학생을 위한 기부, 그리고 시간이 흘러 후원을 받은 학생의 기부. 발전기금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따듯한 대물림을 마주합니다. 도움을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그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에서의 여행은 더 따뜻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글. 권명훈 발전기금 출연팀



글. 윤주해 지리학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소식

서울대학교발전기금-하나은행 '신탁 기부' 업무 협약식 개최



지난 7월 23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과 하나은행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신탁 기부'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다. 발전기금의 채준 상임이사와 하나은행 이원주 단장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에는 신탁을 통한 기부 문화 정착 및 저변 확산을 필두로, 서울대학교 기부자 전용 신탁상품 공동 개발에 힘쓰자는 내용이 담겼다. 그 밖에도 신탁 기부 관련 법률 및 세무 등의 자문 공유와 신탁상품 가입 시 고객이 부담하는 보수 우대가 포함됐다. 발전기금은 국내 대학 최초로 위탁운용기관(OCIO)에 기금을 맡겨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확대한 바 있다. 채준 상임이사는 "발전기금이 기부 신탁을 위해 하나은행과 협업하며, OCIO에 이어 기금 모금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발전기금과 하나은행이 각자의 분야에서 국내 최고 역량을 자랑하는 기관인 만큼, 이번 협약으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의 소감을 전했다.

미주재단 페이스북 개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은 미국 교포 사회의 발전과 서울대학교의 장학사업, 각종 학술 및 연구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미주재단을 통해 미국 거주자 누구나 간편하게 서울대학교 모금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연방국세청(IRS)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서울, 총 3곳에 자리한 글로벌 오피스 미주재단 사무소에서는 기부금의 편리한 약정과 납입, 감사함을 담은 예우프로그램까지 기부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한다. 앞으로는 개설된 미주재단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학교의 소식과 미주재단의 감동 어린 기부 스토리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 | | |
|--|---|
| 홈페이지
snu.or.kr/usa | 페이스북
facebook.com/snufusa |
|--|---|

협약식 및 감사패 전달식

2020.05.18
최규훈 (체육교육 94일) 에스티유니타스 강사
체육교육과 사도장학기금 1억 원 약정

2020.05.18
최경준 (법학 79일) 법무법인 양현 대표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Kim, Chang & Lee 기금 5억 원 약정

2020.06.01
미코그룹 (전선규 회장, 경영학 78일)
경영대학 발전기금 등 1억 원 약정

2020.06.15
프로탄바이오(조제열 회장, 수의학 85일)
프로탄바이오 수의학 박물관 기금 1억 원 출연

2020.06.01
데스코 (김은태 회장, AMP 80기)
경영대학 발전기금 등 1억 원 출연

SNU President's Honor Club · 100억 원 이상 출연

김정식 전자공학과 48일 	정석규 화학공학과 48일 	유희진 기계설계학과 78일 	이용희 태광사 회장 	윤대섭 농공학과 49일
삼성 	관정이종환교육재단 	SK 	LG 	한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전력공사 	웅진 	포스코 	KT
영원무역 	신한금융 	현대자동차 	우리금융 	부영
미래국제재단 	롯데장학재단 			

50억 원 이상 출연

조천식 정치학과 45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관악회 	현대 	풍산 	메가스터디
SK하이닉스 	태영 	동진쎄미켐 	두산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
CJ 	IBK기업은행 	대림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스페코·삼익악기
한진 	S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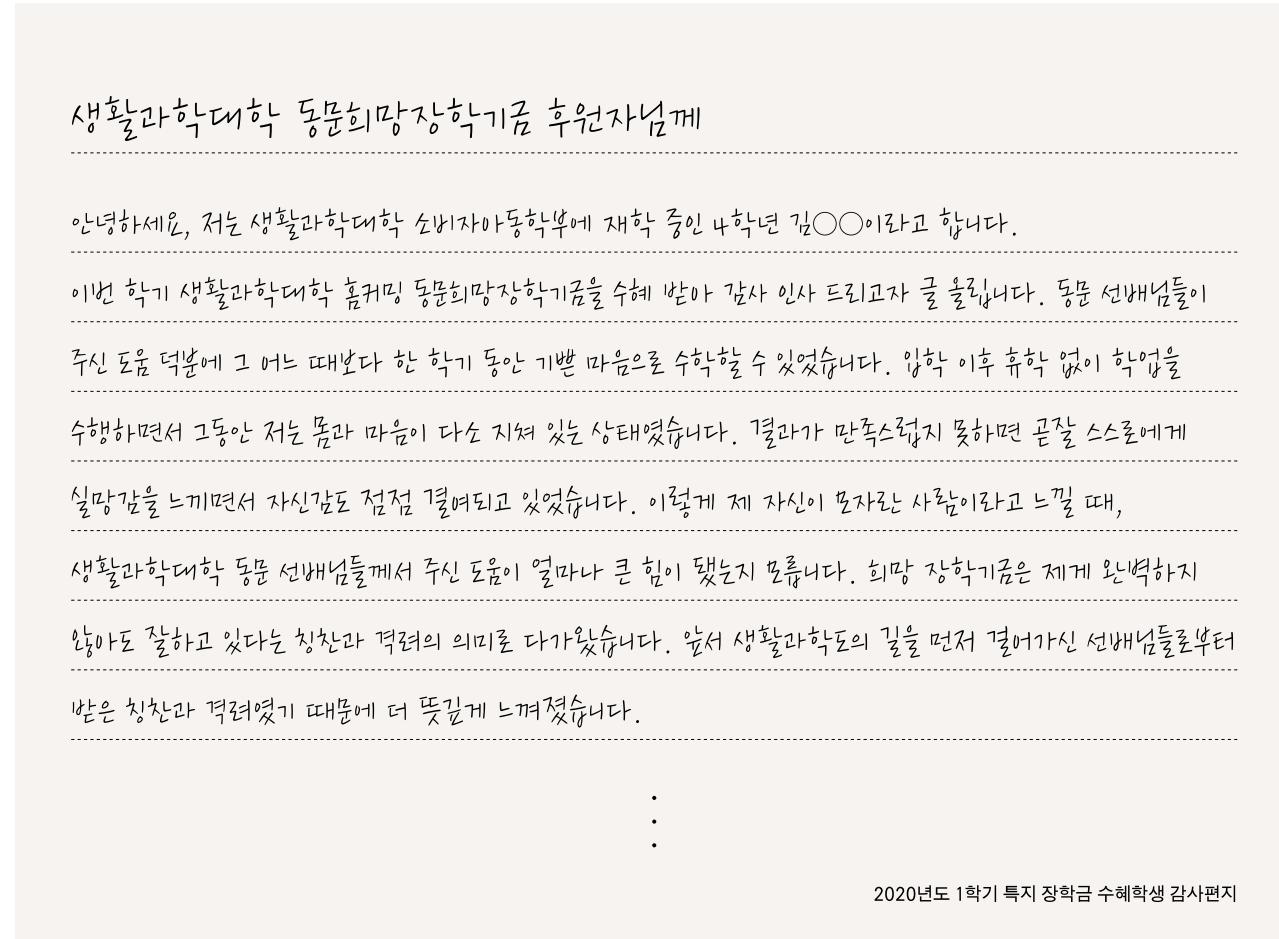
SNU Gold Honor Club · 10억 원 이상 출연

홍성대 수학과 57일 	정영호 생물학과 47일 · 박양숙 	이기영 前 의대 교수 	김석수 자원공학과 73일 	김철 · 이옥자
손동준 전자공학과 59일 	신창자 의학과 72일 	변무관 	최창영 금속공학과 64일 	원재연 경영학과 82일
박영희 수학교육과 54일 	김연혁 히로세코리아 감사 	주중광 · 허지영 의학대학 60일 · 화학과 66일 	유태용 토목공학과 50일 	서정선 의학과 70일
전은기 · 김은희 	박병준 섬유공학과 52일 · 홍정희 	양두석 독어독문학과 69일 	곽영필 토목공학과 56일 	손장순 불어불문학과 54일
이순자 불어불문학과 57일 	김명희 기악과 91일 김형진의 모 · 신정희 	박상운 	김윤식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 가정해 호원숙, 호원순, 호원경, 호원균 	박원서의 상속인 호원숙, 호원순, 호원경, 호원균
윤전수 · 이삼락 	차상균 전기공학과 76일 	이효상 · 이수록 물리학과 66일 · 농화학과 74졸 	백추현 	민계식 조선항공학과 61일
정운환 일학과 56일 	곽노섭 수학과 49일 	신승일 화학과 57일 	정덕균 전자공학과 77일 	윤종용 전자공학과 62일
백형의 · 유근순 	강옥채 	김정식 건축학과 54일 	민선식 경제학과 78일 	박정혜
양윤홍 전자공학과 63일 	이필남 	이현수 농화학과 60일 	정혁진 기계설계학과 73일 	홍정희
단암장학재단 	로이드선급협회 아시아 	대우 	카길애그리퓨리나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하나금융지주 	현대산업개발 	동원 	동양 	KB금융지주
송원김영환장학재단 	대우조선해양 	형애장학회 	옹운장학회 	대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일진 	미래에셋대우 	풀림무약 	한국가스공사
하나제약 	현대차 정몽구 재단 	현대중공업 	녹십자 	사회과학정보화교육연구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천재교육 	생명보험협회 	TOYOTA MOTOR CORP. 	NHN
신풍제약 	신라문화장학재단 	현송교육문화재단 	코스맥스 	한국수력원자력
쌍용양회공업 	이연제약 	환경인제약주식회사 	서울장학재단 	DB김준기문화재단
일주학술문화재단 	세진에프알에스 	방일영문화재단 	한국프리밸 	진양제약
대우인터내셔널 	아산사회복지재단 	STX 	농심 	무한투자
크로바상사주식회사 				

*금액 순

기금 출연자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특지 장학금 후원자 예우



장학금을 쾌척해주신 후원자님께 장학생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편지를 보내드립니다. 꿈을 향한 포부와 다짐 그리고 후원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담은 편지로 서울대학교의 밝은 미래를 더욱 기대합니다.

특지 장학금 출연 문의
출연팀
02-871-8004

장학금 수여식 문의
예우팀
02-871-1622, 1633

이메일 문의
snuf@snu.ac.k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SNU HONOR CLUB
예우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지나면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가사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는 노래를 각자 추천했는데 ‘걱정말아요 그대’는 잘 알려진 곡이기도 했고, 메시지가 좋았어요.”

— 원종수 지휘자
스물다섯 번째 스누새편지 중

#서울대학교 #서울대합창단
#서울대OB합창단
#앳홈파이어프로젝트



언제나 당신 곁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더 가깝게



대표 홈페이지
snu.ac.kr



페이스북
[facebook.com/
SeoulNationalUniversity](https://facebook.com/SeoulNationalUniversity)



인스타그램
[@snu.official](https://instagram.com/@snu.official)



유튜브
[youtube.com/
SeoulNationalUniversity](https://youtube.com/SeoulNationalUniversity)



스누새 편지
bird.snu.ac.kr

SNU NOW
온라인 뉴스룸
now.snu.ac.kr

소통매거진 <서울대사람들>은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호는 서울대학교 대표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 매거진 구독, 이번 호에 대한 의견, 살고 싶은 소식을 소통팀에게 알려주세요.
후기와 좋은 소식을 보내주신 분을 선정해 서울대학교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sotongteam@snu.ac.kr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빛나는 지성의 힘

빛나는 지성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저마다의 길을 걷고 있는
서울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T. 02-880-5270
www.snu.ac.kr